

• 2026 년 6 월 속회: 믿음과 기도의 중요성

1. 환영과 인사: 속장
2. 찬송: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뵈어도 (새 545/통 344)
3. 시작 기도: 속원 중
4. 감사의 고백과 나눔: 속원들이 돌아가면서 지난 한달 동안 하나님께, 가족과 성도들에게 감사한 내용을 나눕니다.
5. 성경읽기: 마가복음 9:14-29

그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고, 율법학자들이 그들과 논쟁을 하고 있었다.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서는 몹시 놀라, 달려와서 인사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그들과 무슨 논쟁을 하고 있느냐?"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어디서나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를 거꾸러뜨립니다.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몸이 뻗뻗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했으나,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그래서 그들이 아이를 예수께 데려왔다. 귀신이 예수를 보자, 아이에게 즉시 심한 경련을 일으켰다. 아이는 땅에 넘어져서, 거품을 흘리면서 뒹굴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셨다. "아이가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되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졌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 아이 아버지는 큰소리로 외쳐 말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무리가 어울려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악한 귀신을 꾸짖어 말씀하셨다. "병어리와 귀머거리가 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아라." 그러자 귀신은 소리를 지르고서,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켜 놓고 나갔다. 아이는 죽은 것과 같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말하기를 "아이가 죽었다" 하였다.

그런데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니, 아이가 일어섰다.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물어보았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6. 본문의 내용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내려온 예수님과 세 제자를 맞이한 것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해 찢찢매는 남은 제자들과 그들을 비웃는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는 특별한 영적 체험 이후 우리가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세상의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며,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임을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아버지는 처음에 "하실 수 있으면"이라는 조건부 도움을 구했으나, 예수님은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꾸짖으시며 문제 핵심이 '능력의 부족'이 아닌 '믿음의 부재'에 있음을 지적하십니다. 이에 아버지가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외친 고백은, 온전한 믿음도 내 의지가 아닌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은혜의 영역임을 일깨워 줍니다.

아이를 고친 후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고 대답하십니다. 제자들이 과거 경험이나 자기 능력을 의지했던 교만, 긴장감을 잃어버린 영적 방심을 책망하시면서, 사역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영적 원리를 가르치십니다.

7. 나눔

아이의 아버지는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라며 자신의 실수와 한계를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현재 나의 삶에서 내 힘으로 해결하려다 실패하고 주님 앞에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정직하게 내어놓아야 할 문제는 무엇인가요?

과거의 영적 체험에만 갇혀 있지 않은 지, 혹은 내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다가 무력감을 느끼고 있지는 않은 지 돌아보며 기도의 자리를 나아가야 할 부분은 없는지 나눠 보세요.

8. 합심기도: 함께 나눔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해서 기도한 후에 속장이 마무리 기도를 합니다.

9. 주기도문: 다같이